

05 드론 업계 절대 강자 DJI
DJI, the world leader in the drone industry

08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수석작가 다니얼 전 인터뷰
Interview with Daniel Chun, a comedy writer for the Simpsons

10 영화&드라마 속 로맨틱한 '그곳'
Romantic places from dramas and movies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News 현대건설이 2011년 첫 삼을 뜬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이 63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최근 준공했다. 카타르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업의 하나인 이 프로젝트는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당시 선수촌과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을 4개동의 첨단 의료센터로 개조하는 공사다. 현대건설은 총 4개의 병동 중 여성병동, 재활병동, 외래병동의 공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 관련기사 6, 7면

Hyundai E&C has completed the Hamad Medical City project in Qatar. It has been 63 months since the builder broke ground in 2011. As part of a priority medical initiative by the Qatar's government, the project aimed to transform the athlete's village and offices used for the 2006 Asian Games into state-of-the-art medical centers. Out of four facilities, Hyundai E&C was in charge of three buildings for women, rehabilitation and ambulatory.

▶ Continued on page 6 and 7.

최첨단 시설 갖춘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Made in 현대건설'



현대건설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베일을 벗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 7월 본격 분양

현대건설이 7월 8일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분양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THE H)'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너힐즈'는 명예와 영예를 의미하는 '아너(Honor)'와 양재천, 개포근린공원, 대모산 등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나타내는 '힐즈(Hills)'를 결합해 탄생했다.

현대건설은 지하 3층~지상 33층, 23개동 총 1320세대(전용 49~T148㎡) 중

69세대(전용 84~131㎡)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물량은 ▶84㎡ 4세대 ▶94㎡ 1세대 ▶106㎡ 48세대 ▶131㎡ 8세대 ▶T89㎡ 2세대 ▶T91㎡ 1세대 ▶T99㎡ 1세대 ▶T105㎡ 1세대 ▶T109㎡ 1세대 ▶T124㎡ 1세대 ▶T130㎡ 1세대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의 최초 분양 사업지인 만큼 단지 내·외부를 호텔급으로 꾸밀 예정이다. 단지 조경은 자

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현대미술관'을 콘셉트로 조성한다. 호텔 같은 1층 동출입구를 비롯해 분당 210m 고속 엘리베이터와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등 단지 전체를 모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으로 설계했다. 강남 최초로 빌라형 테라스하우스(14세대, 일반분양 8세대)도 선보일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 또한 강남 재건축 가운데 최대 규모(6594㎡)로, 가구당 일반 아파트의 3배 이상이다(세대당 6.6㎡). 이곳에는 비거리 15m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클라이밍, 농구, 배구, 배드민턴), 실내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사우나, 연회장, 카페 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2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11일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VIP 사업설명회(사전예약자限, 1일 3회)를 실시 중이다. 모델하우스는 7월 8일 양재역 힐스테이트 갤러리 3층 'THE H Gallery'에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02-2058-0515

Hyundai E&C's new premium brand The H to be unveiled

"The H," the new premium brand of Hyundai E&C, will hit the market. Korea's primary builder is about to presell "The H Honor Hills," also known as the Gaepo Jugong Apartment 3 redevelopment complex, on July 8.

Honor Hills is a compound of "honor" and "hills" implying the pleasant neighboring environments including the Gaepo Park, the Daemosan Mountain and the Yangjaecheon Stream. This time, the builder will put 69 units on the market. A total of 23 buildings of 33 floors above ground and 3 basement levels offer 1,320 units.

As Honor Hills is the first presale of the premium brand The H, Hyundai E&C is planning to polish the new development to the level of a hotel. The company designed the landscaping of Honor Hills under a theme of a modern art museum. In addition, high-speed elevators moving at 210 meters per minute and Italian kitchen furniture were installed.

Korea's primary builder offers the largest community facilities among redevelopment projects in the Gangnam district. The facilities for residents including an indoor gym for playing basketball, volleyball and badminton and climbing, an indoor driving range, an indoor swimming pool, a fitness facility, a sauna, a function room, a cafeteria and a guesthouse on the area of 6,594 square meters, over three times bigger compared to the facility area for a unit offered by general apartments.



현대건설이 7월 8일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분양한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 펼쳐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 서울시설공단, 한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ASA-K: Association Student Ambassadors-KOREA)과 함께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디자인 페인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지원실장 이경현 이사, 서울시설공단 박호영 교통시설운영처장, 한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김성혁 의장을 비롯해 대학생 홍보대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은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2016 Intergraph Award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5일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Intergraph Awards'에서 'Golden Valve Award'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과 'Platinum Pipe Award' 3D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3D 애니메이션은 현대건설이 주간사인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즈 정유공장'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동종업계 최초로 ▶레이저 스캐닝 ▶SP3D(3D 모델링) ▶SPR(3D 모델뷰어) 등의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제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획부터 학습, 기술개발을 통한 최종 동영상을 제작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는 영원한현대맨” ... 건우회 창립 20주년 행사

20일 계동 본사 대강당, 퇴직 임직원 400여 명 참석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선배님들의 염원과 기원에 힘입어 현대건설은 100년을 넘어 10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의 모임인 ‘건우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일 계동사옥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우회 창립 20주년 행사에는 건우회 회원 400여 명을 비롯해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과 주요 임직원이 함께했다. ‘건우회’는 1996년 6월 창립한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로,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OB모임으로 꼽힌다. 1500여 명의 회원 대부분이 1960년대이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함께 국내에서 활동한 건설업계 원로다.



지난 20일 우리 회사 계동사옥 본관 대강당에서 건우회 창립 20주년 행사가 열렸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건우회 이준림 회장 등 원로들은 정수현 사장과 티타임을 갖고 건설업계 현황과 회사의 발전방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념행사는 ▶공로상 수여식 ▶홍혜걸 의학박사 특강 ▶테너 임정근, 명창 남상일 축하공연 ▶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통해 안정환 건우회 회장은 “지난날 청춘을 바쳤던 계동사옥에 돌아와 이 자리에 서니 감개무량하다”며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며 ‘현대건설인’의 사명감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정수현 사장은 “건우회가 20주년을 기점으로 더욱 성장해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원한다”며 “선배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우리 후배들 역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Geon Wu Hoe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Geon Wu Hoe, a group of former executives and CEOs of our company, marked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To celebrate the anniversary, our company held a ceremony in the head office in Gye-dong, Seoul, on June 20.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about 400 members including CEO Jung Soo-hyun and executive members.

Geon Wu Hoe was founded in June 1996. Most of about 1,500 members are vetera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o worked at home and abroad

together with the late Hyundai founder Chung Ju-yung in the 1960s.

“I am overwhelmed with emotion, coming back to the Gyeongdong office where I dedicated my youth to working.” Ahn Sung-hwan, chairman of Geon Wu Hoe, said in his speech.

“I hope all of you do not forget the will of the late honorary chairman Chung Ju-yung and a sense of duty as Hyundai E&C people. ‘Do not go where the path may lead, go instead where there is no path and leave a trail’”.

싱가포르 마리나사우스 복합개발현장, 상량식 개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싱가포르 마리나사우스 복합개발(SIONE) 현장’의 상량식이 지난 11일 현장 내 30층 루프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비롯해 Sri Azman Yahya M+S 회장, Hiew Yoon Khong 메이플트리 인베스트먼트(Mapletree Investment Group) CEO 등 현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의 메인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상량식은 지붕 슬래브에 흙을 덮는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루프탑·HDF(SKY BRIDGE)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은



SIONE 현장의 상량식에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참석했다.

“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애써준 덕분에 무사히 상량식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마리나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이 싱가포르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6월 우리 회사가 GS건설과 공동 수주한 싱가포르 마리

나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은 총 공사금액 1조4000억원으로,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다. 연면적 52만㎡, 지하 4층, 지상 30~34층의 건축물 4개 동이 중앙광장을 비정형 물결 모양으로 감싼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층마다 다른 평면을 적용했다. 현재 현장의 공진률은 70%로, 오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 수상

우리 회사가 지난 21일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2016년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 ‘행복나눔인상’은 사회공헌에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선정된 단체 9곳과 개인 31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 급여 끝잔 모음인 ‘사랑나눔기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결과 건설업계 최초로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특히 솔선수범해 나눔 활동에 참

여해 온 ‘현대건설 임직원 봉사단’의 이름으로 수상해 더욱 뜻 깊었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1년간 임직원 급여 끝잔으로 모은 성금 3억 4700만원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한편, 중동·아시아·남미 등 15개국에서 27건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 중이다.



21일 열린 ‘행복나눔인상’ 시상식.

중부내륙선철도 6공구 수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6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43%), 계룡건설(22%), 한양(10%), 삼보종합건설(10%) 등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충주~문경 구간 중 충주역~살미역(12.1km)에 이르는 6공구의 공사를 맡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충주역~함지못~대림못~대림산성~향산사거리까지를 지하노선(지중화)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낙찰금액은 총 2484억원으로, 내년 착공한다. 총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이천~충주 구간은 2019년,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버스로 2시간대 소요되는 이천~문경 간 33분대로 단축된다.

‘힐스테이트 동탄’ 평균42대 1로 1순위 마감... 최고 90대 1

‘힐스테이트 동탄’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분양 흥행에 성공했다. 동탄2신도시 분양 단지 중 1순위 청약자가 4만 명이 넘는 것은 분양 사상 최다다. 평균 경쟁률

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

지난 22일 진행된 힐스테이트 동탄의 1순위 청약 결과 총 104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4861명이 몰리면서 평균 42.77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으며, 전용면적 61㎡의 경우 101가구 모집에 9174명이 청약에 신청해 최고 90.83대 1의 경쟁률

을 보였다. 모집가구가 가장 많았던 84㎡의 경우 719가구 모집에 3만 1419명이 청약에 신청해 43.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6개 동, 전용면적 61~84㎡, 총 1479세대로 구성됐다. 단지 전체가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전용면적 61㎡·74㎡ 등 틈새 면적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힐스테이트 동탄 모델하우스 전경.

효과적인 의사 전달법을 주제로 ‘워크 스마트 특강’

우리 회사가 지난 16일과 21일 양일간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 스마트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교육컨설팅 전문업체 ‘폴앤마크’의 박신영 이사가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의사 전

달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박 이사는 “상사의 질문이 내 보고의 목차”라며 상사의 의도에 부합하는 전달력 좋은 보고서 작성법과 보고의 기술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 시간, 업무마감 스탠딩 미팅, 회의문화 개선 등 워크스마트 5대 실행안을 실시해 임직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기존 캠페인안을 개선해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Seoul to create island of art on Han River

June 23

Seoul plans to turn an abandoned island in the middle of the Han River into a music and arts town by 2018,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We held thre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sts for nearly two years for anyone and everyone to submit their ideas on how to best use the island," said Jin Hee-seon, head of the Urban Restoration Headquart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hope to transform the island by 2018 into a music-centered cultural complex with indoor and outdoor theaters, parks, farmers markets, cafes and ecology centers."

The city government announced on Wednesday that the winner of the third contest, Studio MMK, will be the main designer, equipped with 1.9 billion won (\$1.39 million) in city funds.

Studio MMK defeated 51 project proposals by 89 other teams from 23 countries in order to win the contest.

Abandoned for over 30 years, Nodeul Island was originally part of the riverbank on the northern side of the Han River in Ichon-dong of Yongsan District, southern Seoul. After the



Han River Bridge was built in 1917, more people began to visit the area and its sandy beaches became quite popular in the 1950s and '60s.

Then in the 1970s, river expansion and dike-building projects along the Han River led to a massive transformation of the land. The river's currents shifted, isolating the beach area and turning it into an island.

In 1973, the island was purchased by the construction company Chin Hung.

Then in 2005, the Seoul city government purchased the island with plans to turn it into an art center. The following year, Seoul almost struck a deal with the famous French archi-

tect Jean Nouvel, known globally for works such as the Arab World Institute in Paris. But the deal fell through when the architect "asked for too much," according to the city government.

In 2008, the city government took up another project to transform the island into an opera house, but pulled the plug in 2012 due to a lack of finances.

This time, however, the city government says it is ready to pay for it all.

"We expect to commence construction next year and to finish by 2018," said Lee Ji-eun, an Urban Restoration Headquarters official at the city government. "The construction will cost 19.5 billion won, while arranging the

land, reforestation and other landscape work will cost 24.1 billion won."

"The Nodeul Island is different from those," Lee said, "because it will not only be a park but a creative space that citizens and startup companies can change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tastes.

Facilities on the island will be built in a modular building, making it flexible for shopkeepers, entrepreneurs and musicians to add on or take out component parts easily. The island will be divided into two stories, with a 53,000 square-meter (13 acre) top area with open decks and plazas that will be level with the Han River Bridge.

By KOREA JOONGANG DAILY

서울 한강에 예술의 섬 조성 예정

서울시는 한강 한가운데 방치돼 있던 노들섬을 2018년까지 음악과 예술의 복합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년여에 걸쳐 국내외 공모전을 열어 누구나 노들섬의 운영 구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노들섬이 2018년까지 실·내외 공연장, 공원, 상점, 카페, 생태 센터 등 음악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 번째 설계 공모의 당선자로 Studio MMK를 선정하고 1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Studio MMK는 23개국, 89개 팀이 제출한 51개의 제안서 중 선정됐다.

30년 넘게 방치됐던 노들섬은 원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 북단 강둑의 일부였다. 1917년 한강대교가 건설된 이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1950년대와 60년대에 노들섬 모래사장은 명소가 됐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강 확장과 한강변의 제방 공사가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한강 물살의 흐름이 바뀌면서 점차 섬으로 변해 갔다. 1973년 노들섬의 소유권은 진흥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2005년 서울시가 예술센터를 짓겠다는 계획하에 노들섬을 다시 사들였다. 2006년 파리의 아랍문화원과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과 서울시 사이에 설계 계약이 성사되는 듯했으나 건축가가 과도한 설계비

를 요구해 노들섬 개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2008년 서울시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예산 문제로 2012년 노들섬 개발은 다시 한번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이지은씨는 "내년에 착공해 2018년에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공사비는 195억원이 소요되고, 노들섬을 정비하고 숲을 조성하는 등의 조경사업에 241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은씨는 "노들섬은 이전 경우와 다르다"며 "노들섬은 공원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벤처회사들이 자신들의 필

요와 구미에 맞춰 변화가능한 창조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들섬에 조성되는 시설들은 모듈형 건물로 건설될 예정으로, 모듈형 건물은 상점 주인, 기업가, 음악가들이 위치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노들섬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이다. 5만3000㎡ 규모의 상부는 오픈 데크와 광장으로 구성돼 한강대교와 연결될 예정이다.

Key expressions

abandon 버리다, 유기하다
reforestation 숲 다시 만들기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comparison 유형

Q Please compare these two pictures.



There are two interesting pictures in front of me.

On the left side, there is a picture of movie theatre. Lots of red seats and a huge screen are in there. Maybe this is Christmas movie, I can see it with the words on the screen.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play stage. Eight people are on the stage. They are doing play with blue light. They look really active.

I prefer plays to movies because of the atmosphere. I like the active mood and sense of realism of the plays. Movies are also active, but it's just on the screen.

With plays, I can see the players face-to-face. I can communicate with players on the stage.

That's why I prefer plays more. Thank you for listening.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JungleBook' climbs to top of local box-office sales

June 14

The 2016 live-action version of "The Jungle Book" topped the local box office over the weekend.



The classic adventure story of Mowgli and his four-legged friends was released on Thursday and has attracted 851,932 moviegoers, roughly translating to 7.3 billion won (\$6.2 million) in sales so far across 925 screens, the Korean Film Council said on Monday.

Based on the novel of the same title by Rudyard Kipling, the animated feature "The Jungle Book" was first produced by Walt Disney Studios in 1967. This time, the studio brought back the timeless adventure story with computer-generated imagery, appealing to both children and parents who grew up watching the original version.

The newest version of "The Jungle Book" hit theaters in North America on April 15 and stayed at the top of the North American box office for three consecutive weeks. The film has also become the third highest-grossing film of 2016, after "Captain America: Civil War" and "Zootopia."

By KOREA JOONGANG DAILY



외국인 직원 Talk/Talk

The greatest gift that our creator gave us is our family



Romel Belisario Tuppal
from the Philippines
(Survey Engineer,
UAE SARB Project)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ve been working for Hyundai E&C for almost nine years. I'm so glad about the fact that I belong to this group. My job is to manage the survey team, as a team leader. I am developing my ability to handle difficult tasks and trying to gain trust of my subordinates. My role allows me to

have the types of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I look for and ideally suits my skills and experience.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Hyundai E&C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ompanies around the globe. I really believe that our company is an ideal one which fits my interests, qualifications and passions and that our company gives me good opportunities to explore my knowledge, enhance my skills and develop my professional career. I'd like to be a part of its future success and help it continue to grow.

Q You came to Korea to attend the Global Talent Program of Hyundai E&C.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during the period?

What I admired the most was the Asian Factory. It was very impressive to see the assembling of auto parts. The entire process used cutting edge technology. Second, how Koreans build their traditional houses and their culture was impressive. Koreans learned the value of life from their everyday interactions with the nature. Indeed, even the directions which a house is to be built for is determined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Q Whenever you feel stress because of the heavy workload, how do you manage it?

Foremost, I make my mind calm and relax and concentrate on how to deal with this very hectic workload. Then I also seek the support, ideas and opinions of my subordinates, helping me a lot in managing my work.

Q What usually do you do when you miss your family? Do you often go to your country to see your family?

The greatest gift that our creator gave us is our family. They are our strength when



Romel and his family

we feel weak. They give us hope when we feel depressed. One of my ways to ease my loneliness is to call them after work and I usually use my vacation period to visit them.

R&D 혁신 스토리

음식물쓰레기의 변신! '돈 되는' 에코 사이클 기술

⑧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스위스 패션업체 '프라이탁(Freitag)'의 성공신화처럼 홀대받던 쓰레기가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명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자인과 기술이 더해진 폐기물의 놀라운 재사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대표적인 오물로 취급받던 음식물 쓰레기의 변신 또한 주목 받고 있다. 남비 시설을 청정에너지 시설로 변화시킨 우리 회사의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을 소개한다. 글=이영주 / 사진=이슬기

지구 이상난한 바이오에너지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바이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생물에서 얻는다고 알려진 바이오에너지는 농림 부산물, 산업체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Biomass,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를 연료로 열분해나 발효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거듭난다. 바이오에너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며, 시설 투자비용도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환영받고 있다. 콩이나 유채꽃에서 기름을 추출해 바이오 디젤로 사용하거나 보리나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지독한 악취로 배척당하던 음식물쓰레기가 축분뇨·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바이오가스로 거듭나는 것일까?

소화작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우리 회사가 2014년부터 시공 중인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는 하루 8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약 9300Nm³의 바이오가스(택시 21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차량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80t은 50만~60만 명이 배출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 양으로, 인구 20만 명의 충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도 남는 대규모 환경시설인 셈이다. 환경부 최초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인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회사는 2013년 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제안했으며, 전 시설공사와 시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게 된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은 인간의 소화 과정과 흡사하다.(그림1)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타액과 섞여 이를 통해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 수거된 음식물은 전처리 공정을 통해 파쇄와 이물질 선별과정을 거친다. 특히 펄퍼(Pulper)로 이송된 폐기물은 물과 혼합돼 이물질 분리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사이클론을 통해 모래·폐각류 등 미세협잡물까지 철저히 걸러진다. 소화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된 음식물은 소화기관으로 이동해 소화액과 소화균에 의해 본격적으로 분해된다. 이 과정이 바이오가스 생산의 주요 공정인데, 산발효조와 혐기성(Anaerobic)소화조가 위나 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산발효조에서는 걸러

진 음식물쓰레기가 3일간 유기산 생성 과정을 거친다. 이때 용해되지 않는 기름은 따로 회수되는데 이 오일은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쳐 바이오디젤로 활용된다. 산에 의해 발효된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혐기성소화조에서 미생물에 의해 활발히 분해된다. 이때 발생되는 가스가 바이오가스인데, 마치 소화기 다 되고 나면 시원한 방귀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해 발생된 가스는 정제시설을 거치며 CO₂와 메탄으로 분리되는데, 메탄은 차량연료로 활용되거나 도시가스로 각 가정에 공급된다. 또한 발효가 끝난 음식물 폐수에서는 암모니아를 추출해 복합액화비료로 인근 농가에 배포된다.

멤브레인을 활용한 재순환처리로 효율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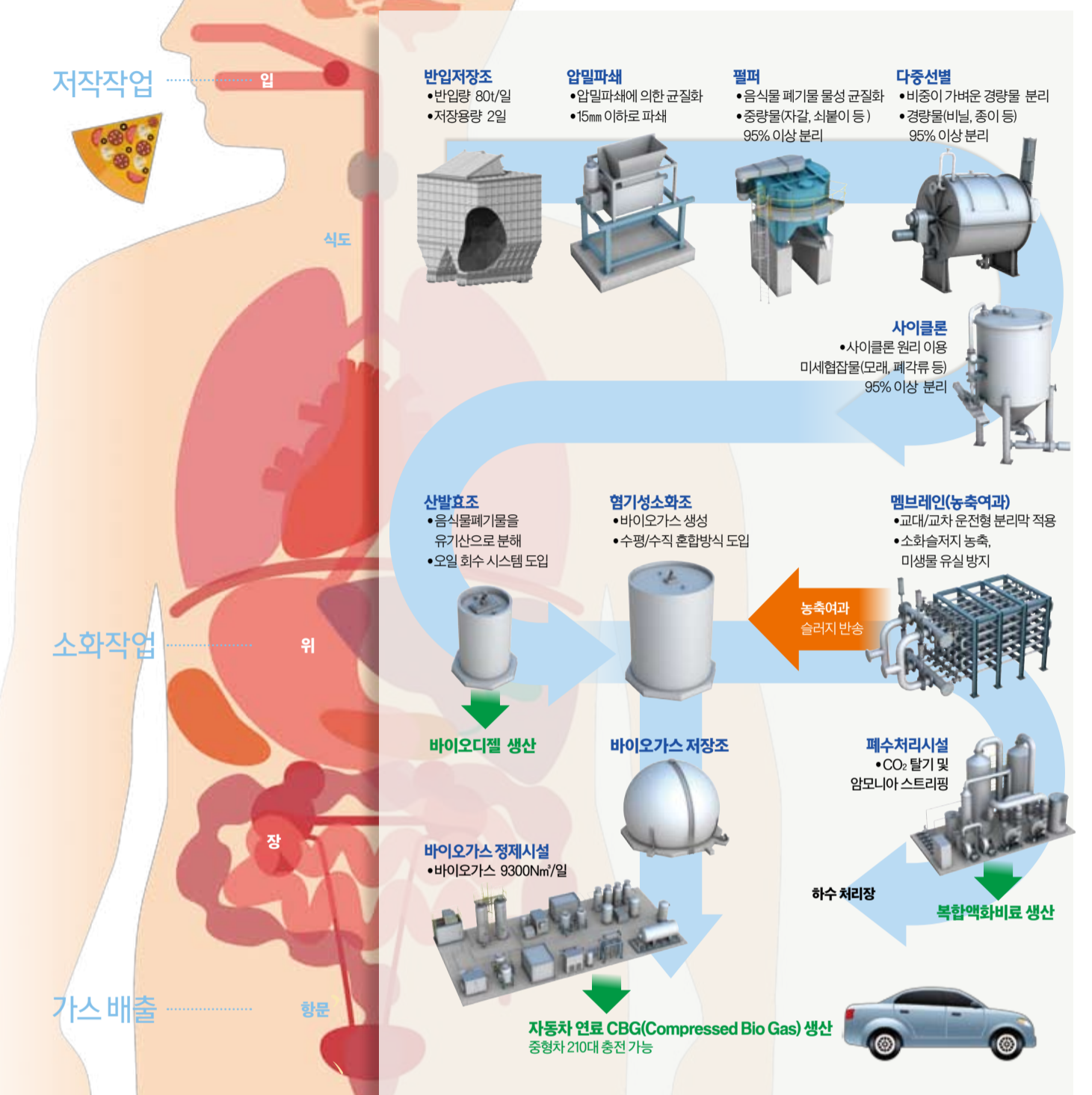
얼핏 보기에 남다를 것 없는 이 바이오에너지 시설이 유독 주목을 받는 것은 전처리와 바이오가스 공정에 숨어 있는 우리 회사의 남다른 기술력 때문이다. 전처리 공정에 적용된 2단 파쇄(압밀과 썰기·필핑), 3단 분리공정(필퍼·다중선별기·사이클론)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파쇄물의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조 유입조건을 안정시켜 소화효율을 증대시켰다. 즉 똑똑 오레도록 씹어 소화를 돕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기술과 달리 혐기성소화액 폐수를 멤브레인(Membrane, 액체 또는 기체의 특정 성분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분리하는 필터)으로 여과농축시켜 재순환처리한 것도 가스 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AnMBR(Anaerobic Membrane Bioreactor Technology)이라 불리는 이 공법은 슬러지 체류시간을 늘리고, 미생물 유실을 방지해 ▶유기물 제거율을 높이고 ▶가스 발생량은 증대하며 ▶슬러지 폐기량과 악취 발생량을 낮추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덕분에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는 유기물 분해효율 90% 이상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폐자원 에너지화 한국형 실증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AnMBR 공법으로 환경기술 353호·녹색기술 GT-12-00143호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폐슬러지와 악취 발생량을 20%나 절감한 것도 이 시설의 자랑이다. 악취가 사라지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비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연구개발본부 물환경연구팀은 이 실증시설의 의미를 다른 곳에 둔다. 국내에서는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순수한 연구결과로 프로젝트를 수주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최초로 사업 본부와와의 협업으로 현장화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10년간 의무적인 가스 생산으로 이곳의 시설이 안정화되면 추후 유사시설 또한 설립될 예정이다. 매출효과 연 2000억원 이상의 기술. 이 정도면 악취 나는 음식물쓰레기의 변신도 놀랍지 않은가?

바이오가스 생산과정 그림1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

수행기관	현대건설(주),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ETE크	연구기간	2013년 12월 ~ 2019년 5월
음식물폐기물 처리 규모	80t/일	공사기간	2014년 7월 ~ 2016년 7월
바이오가스 생산량	9300Nm³/일	운영기간	2016년 7월 ~ 2026년 5월

김영오 부장대우
충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 에너지화 R&D 사업

MINI Interview

② 연구개발본부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연구실적을 소개해 주세요.

2008년부터 음식물 폐수를 가스화하는 연구를 시작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1건, 녹색기술 1건, 특허등록 10건, 특허출원 3건, 상표등록 1건 등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했으며, 2014년 현대차 동차그룹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을 비롯해 올해는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환경분야 연구실적으로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 외에도 폐수 재이용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현대제철과 계약을 맺고 1만5000t/일급 상용화 시설 설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③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 함께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는 폐쇄순환형 기술을 적용해 악취의 외부 발생을 최소화한 시설로, 환경부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모범사례인 만큼 아직 개발단계인 관련 시설들에 가이드라인과 운영 매뉴얼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활성화되지 않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우수사례로 홍보되고 동시에 관련 지자체의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라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관련 분야의 선도적 임지를 확고히 한 만큼 해당 시설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에 유사시설 설계 적용은 물론 당사 사업수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DJI의 '팬텀4'가 공중에서 사람을 쫓아다니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출시된 이 모델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피사체 감지 시스템'이 탑재됐다. 2 팬텀4는 초당 120 프레임의 1080p 해상도가 나오는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3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팬텀 출시 기념 언론 발표회.

글로벌 기업 경영 트렌드 ⑧ DJI

'하늘 위 新산업혁명'을 주도하다 드론 업계 절대강자 DJI

드론 전문회사 'DJI'는 중국이 배출한 세계 1위 IT 기업 중 하나다. DJI는 2014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드론 시장을 장악했다. DJI가 내놓은 드론 '팬텀'은 미국 타임지의 '2014년 10대 과학기술 제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로봇', 뉴욕타임스의 '2014 우수 첨단기술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 10년 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글=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DJI 코리아

가성비 좋은 보급형 드론 개발, 5년 새 매출 2000배 증감

올해 서른여섯인 프랭크 왕은 DJI(Da-Ji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다. 중국 항저우 태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형 비행기 조립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항공과기대에 진학해 로봇과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연구 끝에 2005년 열린 홍콩 로봇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프랭크 왕은 2006년 졸업과 동시에 경진대회 상금과 로봇을 판매한 돈 3억원으로 DJI를 설립했다. 그는 회사 설립 초부터 드론 운영체제 개발에 집중했다. 2013년 소형 드론을 출시하면서부터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가성비' 좋은 보급형 드론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프랭크 왕이 2013년 첫선을 보인 '팬텀(Phantom)'은 기존 레저용 무인항공기와 달리 4개 프로펠러로 비행한다. 헬

기와 비슷하던 기존 제품들은 조종이 어려웠던 반면 팬텀은 한 시간가량 연습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복잡한 조립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즐길 수 있는 완제품이란 점도 일반 사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1.3kg의 무게, 700 달러 수준의 저렴한 가격 또한 드론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주요소이기도 하다.

DJI는 2014년 1400만 화소 독자개발 카메라를 탑재한 '팬텀2'를 공개했다. 고가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해야 장착할 수 있던 카메라를 기본 탑재한 것은 드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제품으로 DJI는 레저 시장뿐 아니라 사진 촬영 등 전문영역으로 판매를 확대했다.

팬텀의 성공 이후 DJI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09년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2014년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드론 업계 최초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 성장 속도를 분석해 보면 매출이 2000배가

량 뛰어오른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Sullivan)에 따르면 DJI는 2014년 기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DJI가 48.4%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직원 수 또한 2006년 20명에서 2013년 1240명, 2015년에는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DJI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홍콩 등 총 7개국에 1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10년 만에 드론 시장 70% 장악
완제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개발 생산
최초 개발한 X자형 드론... 세계 표준 모델로



불만족이 만족을 창조해 낸다

회사를 혁신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건 프랭크 왕의 '완벽'을 지향하는 경영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집념은 종종 스티브 잡스에 비견된다. 프랭크 왕의 사무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다.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지 마라." 그는 늘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실제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왕 CEO는 본인의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인해 주위와 충돌이 잦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프랭크 왕은 오로지 자신이 만든 제품에만 관심이 많았다. 드론에 쓰이는 1mm 짜리 나사라도 늘 최고를 고집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프랭크 왕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DJI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는 '신속한 제품 개발(Rapid Prototyping)' 능력이 다. DJI는 시장 흐름을 분석해 5~6개월마다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경쟁업체들이 빨라야 1년, 통상 2~3년 간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다. 두 번째는 '기민한 제조능력(Agile Manufacturing)'이다.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경쟁사 대비 저가로 공급하며 동시에 수익성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운 것이다. 세 번째는 '수평적 마케팅(Horizontal Marketing)'. DJI는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영화·농업·건설 등 업종별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는가 하면, 드론 완제품 외에도 여러 부품들 즉 카메라 고정장치, 무선 제어장치 등 보조상품(Ancillary Products)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기술력×추진력 '불변의 성공방정식'

DJI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처럼 움직인다. R&D 과정에서 철저함을 추구하지만 의사 결정과 추진은 신속하다. 최근까지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를 포함해 무려 10개 이상의 모델을 선보였다. 민간 드론 시장의 폭풍 성장은 DJI '속도전'과

매ק 같이 한다.

한국 시장 진출 과정도 비슷했다. DJI 내 한국팀이 꾸려진 건 지난해 중순이다. 처음에는 DJI코리아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국 시장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DJI는 결정 3개월 만에 실제로 DJI코리아를 설립했다. 법인 설립에 단 3개월, 전체 준비 기간을 모두 합해도 6~9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스타트업 특유의 개방된 빠른 의사 결정이 여전히 살아 있다.

DJI의 독보적인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이다. 전체 임직원 5000명 중 3분의 1가량인 1500여 명이 개발 파트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R&D와 관련된 예산은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을 정도다. R&D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DJI는 현재 드론의 원천기술 특허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안정적인 영상촬영을 위해 모터의 진동, 바람, 드론의 자세 등 많은 변수를 제어하는 안정화 '플랫폼(Stabilizing Platform)'을 독자 개발했고, 팬텀의 안정적 정지비행 기술은 동급 대비 최고 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메라 집벌(카메라 지지대), 작동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SW)까지 자체 개발·생산했다. 핵심 기술을 제품 생산의 동력으로 삼아 외부에서 공급받을 때보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올 3월 서울 마포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상업용 드론 '팬텀'의 진화

구분	출시	무게	최대속도	작동온도	장애물감지	비행시간
팬텀1	2013	1200g	10m/s	영하 10~50도	불가능	10분 내외
팬텀2	2014	1000g	15m/s			20분 내외
팬텀3	2015	1280g	16m/s			23분
팬텀4	2016	1380g	20m/s	0~40도	가능	28분

설립년도 2006년
설립자 프랭크 왕(중국)
매출/달러 50만(2009), 5억(2014), 10억(2015)
기업가치 100억 달러(약 11조원)
직원수 5000여 명
대표 제품 팬텀, 인스파이어, 스프레딩윙스 등



1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 전경. 2 여성 병동 로비 사진. 3 외래 병동과 재활병동을 잇는 Bridge. 4 현장 직원들이 무재해 4000만 시간 달성 기념 행사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5 5월 30일에 개최된 'Key Handover ceremony'.

연중기획 현장탐방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시티 공사

현대건설의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병원 건축물 분야 선도기업 '우뚛'

'세계 크레인의 1/3이 카타르에 집결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타르 수도 도하에는 2022년 월드컵에 대비한 대형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다. 분주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카타르에서 우리 회사는 루사일 고속도로·국립박물관 신축공사·신형만 공사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사보신문>에서는 낙후된 의료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최첨단 의료시설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에 가봤다. 글=김승희

탁월한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공기를 3개월 앞당기다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은 당초 5억3400만 달러였지만 설계 변경으로 약 9억 달러로 증액됐다. 우리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이 프로젝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촌과 프레스센터 등으로 사용된 건물을 확장해 병원시설로 개조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실상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는 대공사였다.

병원 공사는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와 병원 관계자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설계·시공 통합 엔지니어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 회사는 발주처가 제안한 공정보다 3개월

가량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Dry Wall)을 대안으로 제시해 미국, 이탈리아의 우수한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당초 미국 설계사가 계획한 여성병동의 로비 디자인을 국내 설계사와 협력해 변경·제시해 발주처로부터 높은 만족감을 얻어냈다.

이후 우리 회사는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인정받아 나머지 병동의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추가 설계도 진행할 수 있었다.

전체 4개 동 중 우리 회사가 맡은 3개 동(여성·외래·재활병동)은 연면적만 17만8000㎡에 달해 한국 최대 의료시설인 삼성의료원(14만8000㎡)을 훌쩍 뛰어

지난 5월 'Key Handover Ceremony' 성대하게 열어~ 성공적인 준공으로 발주처로부터 감사패 받아

넘는다. 이미 완공된 주변 의료시설까지 합친 전체 하마드 메디컬시티 면적은 66만㎡에 이른다. 병원 내부는 전 세계의 유명 고급 마감재와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를 적용했고, 최신식 의료장비들도 설치했다. 현재 이 현장은 4월 준공 이후 병원 개원 전까지 유지 보수 관리와 내부 추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0일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장인 김정철 부사장을 비롯해 발주처, 병원 관계자, 협력사, 대사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ey Handover Ceremony' 행사를 가졌다. 발주처는 뛰어난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적기에 성공적인 준공을 해 낸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하마드 메디컬시티 현장은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를 우리 회사가 모두 수행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의 프로젝트다. 단순도급 형태의 건축 시공과 달리 엔지니어링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급 설계능력을 보여준 하마드 메디컬시티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이 추후 발주 예정인 병원 건축물 수주는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 공사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Interview

“카타르 건설시장? 우리가 접수한다!”

하마드 메디컬시티 현장에서 옹고 뚫었던 63개월, 그들의 솔직담백한 준공 비하인드 스토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까지

김정훈 현장소장(이하 김 소장) 저는 우리 현장이 착공하기 전인 2010년에 부임해 6년째 카타르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사 수주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한 만큼 애착이 큰 현장이에요. 병원 프로젝트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싱가포르 쿠크푸아트 병원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일반 건물에 비해 병상마다 살비, 전기시설 등이 복잡하게 시공되기 때문에 건축공사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박상선 부장대우(이하 박 부대) 소장님, 이동준 차장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같이 근무했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회사는 병원 공사 분야에서 그동안의 시공 경험을 토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발주처와 병원 관계자들 도공사 초기에는 우려와 걱정을 했었지만 공사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 현장 직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죠.

이행우 부장대우(이하 이 부대) 카타르 도하 시내에서 '현대이(현대)' 직원이라 고 하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농담이 아닙니다(웃음). 5월 말에 준공 행사로 'Key Handover Ceremony'를 개최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발주처 관계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 많은 칭찬과 병원 건물을 만족감을 표현했음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주처는 뛰어난 기술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적기에 성공적인 준공을 해 낸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동준 부장대우(이하 이동준 부장) 우리 현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여서 저를 포함해 고생한 직원들의 감화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기간이 길었던 만큼 수많은 우여곡절이 주어졌지만 수주는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관련 공사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내고 유종의 미를 거둔 현장 직원들끼리 서로 알아보고 기념촬영도 하며 자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문화이여로 현장 분위기 'up'

이동준 차장 중동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문화 특성상 술과 돼지고기를 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네요. 순수 카타르인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고 하니 부본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서 격조 높은 현장 전체 회식을 해서 그런지 한국에서보다 더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웃음). 외국인 직원들도 우리나라 특유의 회식 매뉴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국적은 달라도 삼겹살과 소주라는 공통분모 아래 허심탄화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더군요.

김 소장 우리 현장은 부서별로 외국인 파견장의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그들과 협업해 현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꾸러가는지가 공사 성과를 가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에 외국 인근로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적인 존중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문화, 관습 등을 이해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와 업무 달성을 위해 때로는 강하고 엄격하게 돌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벗어나서는 동료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부대 요즘은 라마단 기간인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중동 특유의 문화 중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인사예절인데요. 만나면 서로 가볍게 안고 뽀뽀를 건넌다거나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동준 차장(공무팀장), 박상선 부대(공사팀장), 김정훈 현장소장, 이석 부대(전기팀장), 이행우 부대(관리팀장), 옥영근 부장(설비팀장).

Hyundai E&C positions itself as a leading company in engineering of medical building industry

People say one third of construction cran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in Qatar. A number of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underway in Doha, capital of Qatar, busy preparing for Qatar's 2022 World Cup. Here, Hyundai E&C is conducting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Lusail Expressway,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and the New Harbor.

Excellent engineering capability reduces construction period

Hyundai E&C received the Hamad Medical City project from Public Works Authority in 2011. The construction costs were originally estimated at 534 million dollars but rose to about 900 million dollars due to some design changes. The project solely constructed by Hyundai E&C was a remodeling project designed to turn the athlete's village and press center of the 2006 Asian Games into medical facilities. Medical building projects generally require builders to offer a higher

level of capacity in terms of design, construction and integrated engineering. They should be able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of clients and hospital officials in the design process best suited to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edical buildings. Our company could defeat competitors from the U.S. and Italy by suggesting the Dry Wall construction method to finish the construction about three months earlier than the client suggested. Three buildings including wards

for women, ambulatory and rehabilitation are built on the area of 178,000 square meters, much bigger than that of Samsung Medical Center, the largest medical facility in Korea. Combined with the already



Foreign workers are attending safety training.

built medical facilities around the hospital, the total area of the Hamad Medical Center reaches as much as 660,000 square meters. Our company utilized high quality finishing materials and hotel-style interiors and installed cutting edge medical equipment. Although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pril, our employees at the construction site will be devoted to managing the maintenance and putting the final touch to the hospital until the hospital is open to the public.

Expecting zero accidents in all processes

At the peak of the construction, over 4,000 workers were mobilized for the Hamad Medical City project on a daily basis. Along with extreme summer heat above 50 degrees Celsius in the Middle East, a series of sandstorms and high humidity were the biggest barriers preventing the construction. Amid the unfavorable conditions, we have remained true to basic safety guidelines by offering training sessions to multinational workers from Bangladesh, India, Nepal and the Philippines every day and conducting site inspections. As a result, we attained 40-million hours of zero accident in August 2015 and are expecting to achieve

zero accidents in all construction process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63-month construction, a key handover ceremony was held on May 30.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about 200 people including Kim Jung-chul, head of Division of Building Works and those concerned with the client, the hospital, our subcontractors and the Korean embassy in Qatar. In the ceremony, the client awarded an appreciation plaque to our employees in recognition of our outstanding technological prowess and engineer capability which enabled us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Hamad Medical City project on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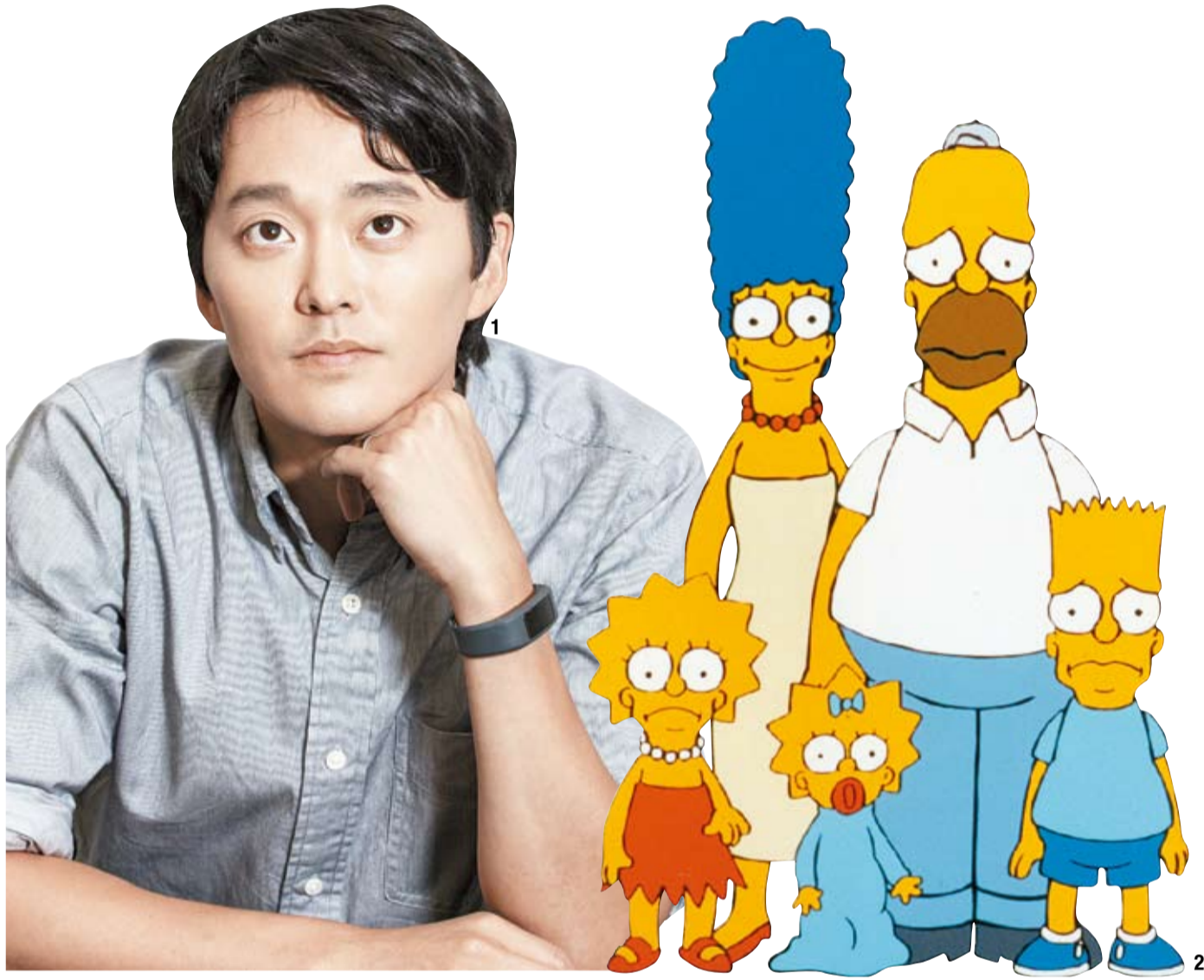
현대건설이 시공한 병원 건축물 대표 프로젝트

현대건설은 19개 국내 병원을 비롯해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6개 해외 병원의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표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p>대학 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의료원 1991년 준공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1993년 준공 서울대학교 병원 1994년 준공 	<p>해외 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디컬복합시티(이라크) 1984년 준공 킴파트메디컬시티(사우디아라비아) 1994년 준공 	<p>사설 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아산병원 1994년 준공 서울 아산병원 1995년 준공 	<p>서울특별시서브메병원 2008년 준공</p> <p>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08년 준공</p> <p>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병원 2012년 준공</p>	<p>창이병원(싱가포르) 1998년 준공</p> <p>쿠크푸아트 병원(싱가포르) 2010년 준공</p>
---	---	--	--	---

만나고 싶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트 있는 글로 미국을 사로잡은 남자,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수석작가 대니얼 전 “웃기는 재주가 미 주류사회에 섞이게 해”



미국 사회를 가장 위트 있게 풍자한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히는 <심슨 가족>(1989~, FOX)과 제지회사 사무실의 부조리한 일상사를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태로 담은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2005~2013, NBC), 이 두 시리즈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건 단연 우수한 작가진이다. 그 '브레인' 격이라 할 만한 수석 작가 가운데 한국인이 있다. 바로 지난해 미국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TV 작가 10인'에 뽑힌 한인 교포 2세 대니얼 전(36)이다. 하버드 출신으로 유명 방송인 코넬 오브라이언 등을 배출한 교내 코미디잡지 『램퐁』에 기고하면서 작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작가가 되기 위해 생물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도 했다. “작가가 되려면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문학이나 영화를 전공하는 게 오히려 제약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시리즈들의 탄탄한 스토리를 도맡아 온 그만의 비결은 뭘까. 최근 ‘서울디지털포럼’(SDF, SBS 주최)에 코미디와 소통에 관한 연사로 초청 받은 그를 만났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매거진 M> 기자



3 코미디 작가를 꿈꾸게 된 계기는.
아시아인이 거의 살지 않는 소도시에서 자랐다.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게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코미디는 아웃사이더였던 내가 미국 주류 사회에 섞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4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찾나.
삶을 열심히 관찰해서 남들이 놓친 지점을 색다르고 진실하게 표현할 때 좋은 코미디가 나온다. 요즘 영감을 주는 건 내 아이다. ‘아빠나 결혼하면 불도저 몰아도 돼요?’라고 묻는다. 결혼이 뭔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관문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신선한 자극을 얻는다.

5 코미디 작가로 어려움이 있다면.
요즘은 사람들이 부쩍 쉽게 분노하는 것

같다. 희극인에게는 힘든 상황이다. 기본 나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과한 농담을 해도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 당할 만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6 <심슨>을 쓸 때 필 염두에 두나.
역사상 가장 웃긴 쇼라는 말이 많은데, 무조건 웃기기 위해 쓴 건 아니다. 관객이 캐릭터에 대해 공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글을 쓸 때 에피소드의 내용이나 구성보다 어떤 감정에 대해 써야 할지 고민한다. 28년째 장수한 데는 캐릭터에 대한 작가들의 애정이 식지 않은 덕이다. 캐릭터를 속속들이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7 최근 한국엔 잇따른 대형 인재(人災)로 웃음을 잃은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 같은 비극이 있었을 때 코미디 작가들은 어떤 고민을 했나.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1975~, NBC) 등 적잖은 코미디 쇼가 휴방했다. (아니언)이라는 풍자 뉴스 매체도 처음엔 발행을 못했다. 그러다가 9·11 테러 사건 이후 첫 신

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망했다(Holly Shit)’라고 써서 내보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재미있게 받아들였다. 코미디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 어떤 비극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비극이 절대 극복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다.

8 미국 예능의 새 경향이려면.
한국·중국·남미 등 이전까지 주류 사회에서 소외돼 있던 문화권의 특색이 고스란히 반영된 예능 콘텐츠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관점, 문화 배경을 가진 콘텐츠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9 한국 코미디를 보는가.
자주 접하지 못했다. 한국영화는 즐겨 본다.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김기덕 감독의 영화와 이창동 감독의 <시>(2010)를 좋아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창의력 폭발’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한국과 협업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차기작으로는 파라마운트사와 영화를 준비 중이다.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통하리라 본다.

1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드라마 <더 오피스> 등을 히트시키며 스타 작가 대열에 오른 대니얼 전. 2 미국에서 28년 동안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심슨 캐릭터. 3 대니얼 전은 지난 달 20일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코미디 연결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코미디 최고 문장가의 글쓰기 비법

강연과 인터뷰에서 대니얼 전이족집게 과외 하듯 들려준 글쓰기 비법을 10계명으로 정리했다.

1 글쓰기는 공예다
공예는 예술과 달라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합니다. 아마추어 작가는 영감이 오길 기다리지만 직업 작가에게 그건 사치죠. 전 운전할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규칙을 만드세요. 최고의 작가와 예술가들의 업적 뒤엔 그들의 규칙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매일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걸 쓸 수 있게 됩니다.

2 구조가 먼저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나온 3막극 구조는 여전히 잘 먹혀요. 주인공을 나무 위에 올려서(1막), 돌을 던지고(2막), 나무에서 끌어내리는(3막) 형식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3막극만 한 게 없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면 구조를 먼저 탄탄하게 짜세요. 창의력은 나머지 부분에서 발휘하면 됩니다.

3 ‘그러나’와 ‘그러므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풍자 애니메이션(시우스파크) 시리즈의 크리에이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미국에선 대본 쓰는 걸 ‘스토리 개기(StoryBreak)’라 해요. 스토리 개기에서 중요한 건 모든 이야기가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연결되는 것과 달라요. 장면 간 인과관계가 없는 연결은 나열에 불과하죠.

4 제약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만약 세상의 물리적인 규칙을 모두 무시하는 이야기를 쓴다고 쳐요. 모든 게 가능한 세상에서 대체 뭐가 놀랍겠어요. 코미디도 절제된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와야 폭소를 일으키죠. 미국 드라마 <소프라노스>(1999~2007, HBO)처럼요. 의표를 찌르고 싶다면 규칙과 제약이 많은 사회에 대해 쓰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되니까요.

5 아이디어에 왜 반했는지를 잊지 말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힘들게 쓰다 보면 디테일에 매몰될 수 있어요. 처음 쓰게 된 계기를 잊지 말아야 해요. 가령 <스타워즈> 시리즈(1977~)의 묘미는 광선 검을 휘두르는 액션이죠. 그걸 기대하고 봤는데 한 시간 넘게 은하공화국 의회 장면만 지루하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왜 자신이 그 아이디어에 반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6 사건의 동기를 납득시켜라
사건의 결과보다 동기를 납득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오

피스)에서 누군가 승진한다면 시청자는 승진 그 자체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왜 승진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죠. 동기 부여는 스토리에도 추진력을 줘요. 가장 재미있는 상황은 캐릭터들이 저마다 명백한 의도를 감춘 채 서로가 모르게 그걸 충족시키려고 할 때 벌어지죠.

7 정서를 기반으로 써라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자신이 출연한 <워킹 데드> 시리즈(2010~, AMC)가 인기 있는 건 좀비 때문이 아니라더군요.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과 생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재미는 금세 고갈되고 말 테니까요.

8 캐릭터를 사랑하라
<심슨 가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이 바보가 된 이유가 밝혀져요. 어릴 적 쿡구멍에 넣은 크레용이 뇌에 박혔기 때문이죠. 크레용을 제거하고 똑똑해진 호머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해 하자 다시 바보가 되기 위해 크레용을 집어넣어요. 잠시나마 대화가 통했던 똑똑한 둘째 딸 리사와의 지적인 대화를 포기한 채 말하죠. 단지 웃기려고 쓴 에피소드가 아니었어요. 호머와 리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웃픈’지. 캐릭터를 속속들이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9 클리셰를 피하라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죠. 코미디의 중요한 속성은 놀라움인데, 클리셰는 식상하잖아요. 자부심 있는 작가라면 닳고 닳은 조크의 유행업자로 전락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할 거예요. 코미디에만 해당하는 애근 아니겠쇼.

10 ‘내 이야기’로 만들어라
미국 방송가 속설 중 하나예요. 방송사 임원들에게 새로운 쇼를 프레젠테이션할 때 작가가 “사실 제 얘긴데요”라고 하면 제작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거죠. 한국·중국·남미 등 이전까지 주류 사회에서 소외돼 있던 문화권의 특색이 고스란히 반영된 예능 콘텐츠가 신선한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가혹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작품 제작 과정을 버텨내려면 나만이 쓸 수 있는 작품이란 확신은 꼭 필요해요.



계동산책 “음식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친환경 프리미엄 레스토랑 ‘꽃, 밥에 피다’



1 ‘꽃, 밥에 피다’ 외관. 한옥을 개조해 고풍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2 보자기 비빔밥. 3 피망넛토.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들러본다는 인사동. 이곳은 낯선 이국땅을 밟은 이들에게 ‘한식 로드’로 통한다. 화랑과 규방, 전통찻집이 즐비한 거리에 친환경 프리미엄 레스토랑 ‘꽃, 밥에 피다’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밥상이라는 뜻의 ‘꽃, 밥에 피

다’는 친환경 식자재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우리말급식’이 맡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 집은 무농약·유기농·친환경 재료들만 엄선해 상을 차린다. 밥은 봉하마을 유기농 현미로 짓는다. 음식을 조리할 땐 화학첨가물이나 인위적인 원료를 배제한 천연 양념과 채소만 쓴다.

메뉴 콘셉트를 책임지고 있는 유바카씨는 이곳에서 ‘밥디자이너’로 불린다. 동화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씨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음식에 반영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메뉴가 바로 ‘보자기 비빔밥’ 이 집에서 가장 ‘핫한’ 음식답게 생김새부터 독특하다. 모양은 오믈렛과 비슷한데 불룩한 배 위에 꽃도 달렸다(심지어 먹는 꽃이다). 칼을 집어 십자 모양으로 자르니 주황빛 당근부터 무생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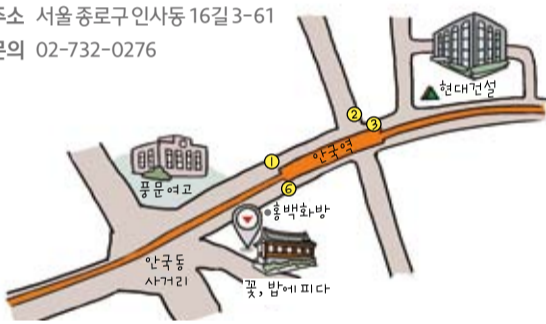
버섯볶음·호박볶음·콩나물 등 고명이 어느 하나 튀지 않고 가지런하게 속을 채웠다. 아삭한 나물에 깔갈한 집고추장을 넣고 속속 비벼 먹으니 감탄이 절로 났다.

다른 메뉴로 입맛을 돋우고 싶다면 피망·마·과일에 참기름과 유자소스로 맛을 낸 ‘피망넛토’를 추천한다. 한 접시에 세 조각이 나오는데 상큼한 향에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까지 소리가 즐겁다. 무항생제 돈육을 쓴 ‘등갈비찜’은 수일간 정성을 담은 소스가 더해져 고소한 맛이 난다. 코스 메뉴는 메인디시에 샐러드·현미밥과 국, 후식 등이 나오는데, 메인디시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은 수시로 바뀐다. 점심 때 예약 없이는 핫걸음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자.

글=김만화 / 사진=이슬기
※ 저녁식사 시(오후 5:30~8:00) 사원증을 제시하면 유기농 아이스크림 무료 증정.

꽃, 밥에 피다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6길 3-61
문의 02-732-0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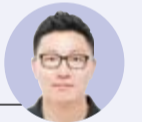


차세대 리더보드 칼럼

보드게임에서 깨달은 업무의 기술

일곱 살 난 아들이 요즘 ‘러시아워’라는 보드게임에 푹 빠졌다. ‘러시아워’는 난이도별로 총 40개의 교통체증 상황카드가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아들과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른이 풀기에도 어려운 케이스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경영서에서 본 ‘문제의 단순화’를 활용한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문제를 간결하고 명확히시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는 방식이다. 물론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2년 전 신형 쏘나타 광고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를 본적이 있다. ‘본질로부터- Run, Stop, Turn, Safe’ 결국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품과 기능들 중 쏘나타는 네 가지 본질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나 상황을 찬찬히 뜯어보다 보면 ‘Root-Cause’라 부르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르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왜?’를 지속적으로 되묻고 대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무작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비는 것보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Root-Cause’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업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핵심 본질과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자. 업무 효율뿐 아니라 개인 업무 역량도 향상될 것이다.



23기 차세대 리더보드 / 인사실 손지동 차장

현이와 건이의 뉴비일기

3화 『회식,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사보신문)은 현대건설의 비전·기업문화 등을 담은 웹툰을 오는 11월까지 연재합니다.

* 뉴비(Newbie) : 못내기, 새로 온 사람, 어떤 직업에 대한 무경험자를 지칭하는 신조어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슬로베니아 류블라나&블레드 호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박완(고현정)과 서연하(조인성)가 행복하게 연애했던 배경으로 등장하는 슬로베니아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슬로베니아(SLOVENIA)는 나라 이름에 'LOVE'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랑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지 않은 여행지였다. 1992년 유고 연방(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해체와 함께 탄생한 유럽의 신생국으로, 동유럽 패키지여행의 필수 스폿인 블레드 호수, 포스토이나 동굴 정도만 살짝 알려져 있었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나의 구석구석이 잘 담겨져 있다. 서연하가 박완에게 프라포즈하기 위해 달려오다 사고를 당하는 곳은 류블라나 구시가의 중심인 프레세르노브 광장의 프란치스코 성당 앞. 그 옆에는 슬로베니아 국민시인 프레세렌(1800~1849)의 동상이, 프레세렌 시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는 그가 사랑했지만 신분 차이로 다가서지 못했던 여인 율리아의 동상이 있다. 류블라나 중앙시장에서는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오프프르나 쿠티나 행사가 열린다. 슬로베니아 셰프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슬로베니아 전통음식부터 브라질, 수단 등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준비돼 있다.

<디어 마이 프렌즈> 서연하가 살고 있는 도시는 아드리아해의 항구도시인 피란이다. 크로아티아의 도시 풍경과 닮은 이곳은 실제로 크로아티아와 인접해 있다. 15세기 베네치아 고딕양식의 지붕이 붉은 주택과 오밀조밀 난 골목, 트리에스테만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언덕 위 성당이 피란의 주요 볼거리다. 두 주인공이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티를 찍었던 곳은 블레드이다. 이곳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인 블레드 호수와 블레드 성이 있다. 알프스 산맥으로 빙 둘러싸인 블레드 호수를 오롯이 감상하는 법은 블레드 성에 오르는 것. 성 안에는 특별히 볼거리가 없지만 야외에 마련된 카페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1 삼중교다리와 프란치스코성당.
2 슬로베니아의 올드타운 피란.



여행칼럼 **올여름, 누구나 주인공이 된다! 영화&드라마 속 로맨틱한 '그곳'**

스위스 베른, 포르투갈 리스본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



1 베른 구시가지리뷰에서 본 풍경. 2 리스본의 명물 노란트램.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파스칼 메르시어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교수 그레고리우스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젊은 여인을 구한다. 여인은 붉은 코트와 책 한 권, 15분 후 출발하는 리스본행 열차티켓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는 여인의 행방을 위해 맡게 된 책에 매료되고, 책의 저자를 만나기 위해 리스본행 열차가 몸을 싣는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나오는 베른의 구시가는 중세에 멈춰버린 시간. 어쩌면 그레고리우스의 무묘한 일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베른 구시가는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흐르는 도시 같다. 4~5층 높이의 예스러운 건물 사이로 넓거나 좁은 골목이 뻗어 있고, 바닥에는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작은 돌조각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 건물의 모양도 대동소이하다. 1층에는 아케이드가 있고, 위층은 직사각형으로 난 좁은 창문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다. 관광객으로는 베른 성당, 치트글로게(Zytglogge)라 불리는 시계탑과 감옥탑,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생가 등이 있다.

그레고리우스가 무언가에 홀린 듯 다다르게 되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175년 대지진을 겪으면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은 이 도시는 대지진 이후 복구된 구시가지와 20세기 들어 발달한 외곽의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구시가지는 지형 때문에 '7개의 언덕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높고 낮은 언덕이 많아 이동 시 트램을 주로 이용한다. 12, 15, 18, 25, 28 등 총 5개의 트램 노선이 있는데, 28번 트램을 타면 리스본 대성당, 상 조르제 성, 알파마 등 리스본의 주요 관광지를 다 돌아볼 수 있다. 리스본에 가면 원조 에그라트르를 꼭 맛봐야 한다. 리스본의 벨렘 빵집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으로, 1837년에 세워져 5대째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드라마 <아이리스2: 뉴 제너레이션>

<아이리스2: 뉴 제너레이션>은 헝가리, 일본, 오스트리아 등 해외로케이션 촬영으로 유명했다. 그중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특유의 이국적인 풍광으로 시청자의 눈을 매료시켰다. 정유권(장혁), 지수연(이대해)이 세계니 다리, 부다왕궁, 페스트 지구의 골목과 건축물 사이를 뛰어다니는 때마다 보이는 부다페스트의 경치는 실로 아름다웠다.

'도나우(Danube)의 진주'라 불리는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구시가지 부다 지구와 신시가 페스트 지구로 구분된다.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길 원한다면 부다로, 호텔이나 쇼핑센터에 가길 희망한다면 페스트에 가면 된다.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꼽자면 어부의 요새가 으뜸이다. 세계니 다리와 머르티트 다리 사이 언덕에 자리한 요새로 부다페스트 최고의 전망대라 말할 수 있다. 어부의 요새 테라스에 오르면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페스트 지역 주요 명소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는 이라면 야경을 꼭 감상해야 한다. 도나우강변에 앉아 부다왕궁, 세계니 다리, 어부의 요새, 마차주 성당 등 야경을 감상하며 들이키는 맥주는 최고의 맛! 부다페스트의 정경을 조망하길 원한다면 젤레르트 언덕에 오르면, 도나우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 지구와 페스트 지구가 보석처럼 빛나는 낭만적인 야경을 볼 수 있다.

1 어부의 요새. 2 어부의 요새 회랑에서 본 국회의사당.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어디로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시기다. 여행을 찾는 일은 언제나 설레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도 준다. 그럴 땐 고민하지 말고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된 여행지를 떠나 보자. 작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다. 글·사진=백상연 여행작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팜랜드 드라마 <화려한 유혹> <빠담빠담>



1 목장 언덕길. 2 <빠담빠담> 세트장과 푸른초원.

녹색의 넓은 초원과 대비되는 푸른 하늘, 시원하게 쪽 뻗은 나무까지, 이곳은 인기 드라마와 각종 CF의 단골 촬영지로 유명한 경기도 안성팜랜드다. 스위스의 어느 목장 속을 걷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드는 안성팜랜드는 99만㎡(약 30만 평)의 그림 같은 초원이 자랑거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도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막걸리를 주며 들뜬 포기의 가치를 배우는 목장체험형 테마파크다. 30여 종의 가축과 교감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물론 이색자전거, 트래터마차, 미니가차 등 각종 놀이기구까지 갖춰 어린 자녀와 함께 찾아도 좋다. 문의는 031-8053-7979, www.nhasfarmland.com

대한민국 충남 부여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서동요>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고도(古都)답게 볼거리가 풍성하다. 삼천궁녀가 백마강으로 몸을 던진 낙화암, 무왕과 신화공주의 전설이 깃든 궁남지는 부여 여행의 필수 코스. 특히 궁남지는 7~8월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연꽃으로 유명하다. 7월 8~17일 부여서동요꽃축제가 열리니 참고할 것. 이외에도 정림사지 오층석탑, 백제왕릉원, 백제문화단지, 무량사, 서동요테마파크 등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서동요테마파크는 백제의 역사를 다룬 첫 드라마 <서동요>의 세트장으로 유명하다. 사극 세트장이 모두 비수비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 이곳에서는 외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백제다운 독특한 건축물과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대풍수> <태왕사신기> <육룡이 나르샤> 등 다수의 사극이 촬영됐다고 하니 드라마를 본 시청자라면 더욱 즐겁게 관광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림사지 오층석탑. 2 궁남지 포물정.

그리스 자킨토스섬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그리스 자킨토스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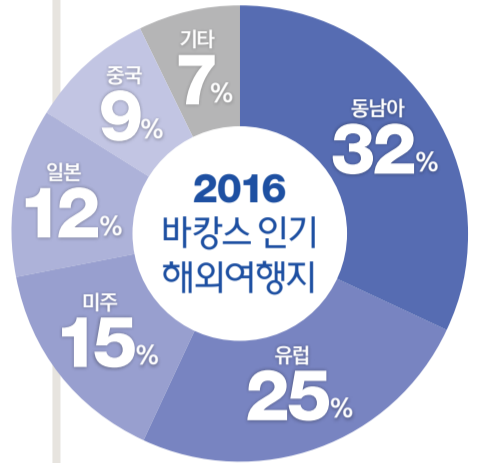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떠오른 관광지, 그리스 자킨토스섬이다. 드라마 스토리보다 더욱 환상적인 정취는 시청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충분했다. 바다에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맑고 푸른 바다와 울퉁퉁 마지 병풍처럼 해안을 감싼 기암절벽 그리고 촬영을 위해 일부러 둔 것 같은 실제 난파선, 그 속에서 로맨스를 꽃피우는 유시진(송중기) 대위와 강요연(송혜교), 정말 실존하는 곳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자킨토스(Zakynthos)섬은 그리스 이오니아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그리스 이오니아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해안선 길이는 약 123km에 이른다. 드라마 촬영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 중 하나인 자킨토스의 나비지오(Navagio) 해변. 난파선이 있어서 난파선(Shipwreck) 해변이라고도 불린다. 나비지오 해변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배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다. 그늘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간다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는 편이 좋다.



휴가철 해외여행상품 분석 여름휴가예약안했다면, 서두르세요!

12개 여행사 추천 2016년 바캉스 상품 100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주목할 여행지와 새로 출시된 바캉스 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글=양보라 <중앙일보> 기자



12개 여행사 추천 2016년 바캉스 상품 100개 분석 결과

'스테이케이션족' 푸켓·발리 대신 다낭으로

스테이케이션(Stacycation)은 'stay'와 'vacation'을 합친 신조어로 실내에 오래 머무르는 여가 방식을 말한다. 베트남 다낭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남아 여행지로 선정됐다. 여행사가 추천하는 다낭 상품은 일정이 대체로 여유롭다. 내일투어는 다낭 최고급 리조트 빈펄리조트를 이용하는 3박 5일 자유여행 상품을 소개했다. 69만9000원부터, KRT는 3박 5일 일정 중 하루를 다낭 인근의 소도시 호이안을 관광하는 패키지 상품을 추천했다. 57만9000원부터.

젊은층은 몽골 소풍, 중년은 대만 먹거리 투어 동남아 여행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리조트로 떠나는 '휴양형'과 도시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는 '휴양형'과 도시형 여행자가 잇속에 끄는 여행자가 혼종이다. 내일투어는 2박 3일 홍콩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홍콩 시티투어 버스 탑승권도 덩어리 주고, 식당·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는 쿠폰북이 포함됐다. 5만9000원부터. 대만도 도시형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도시다. 안티파크투어가 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3박 4일 대만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타이베이 대중교통 이용권을 준다. 39만7000원부터. 모두투어는 덤싱·취권 중 음식을 맛보러 다니는 3박 4일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중년 여행자가 타깃이다. 87만9000원부터.

서유럽보다 체코·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선호

유럽 여행의 대세는 크로아티아다. 여행박사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독일 등 6개국을 둘러볼 수 있는 8박 10일 상품을 내놨다. 동유럽 하이리트를 모두 보고 싶어 하는 중년 여행자를 겨냥했다. 199만원부터. 인터파크투어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2개 나라를 8박 8일 동안 둘러본다. 휴가를 길게 쓸 수 없는 직장인 여행자가 타깃이다. 179만원부터. 한진관광은 인천-에든버러를 연결하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스코틀랜드 일주 7박 9일 상품을 구성했다. 공연 예술 축제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기간에 발문한다. 529만원부터. 에스도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을 둘러보는 참좋은여행의 11박 13일 북유럽 상품도 이색적이다. 339만원부터. 한 나라만 여행하는 상품도 있다. KRT가 독일 일주 7박 9일, 하나투어가 체코 일주 7박 9일 상품을 올해 처음 출시했다. 각각 249만 원·319만원부터.

포키아도프고, 가족여행은 오사카 선호

일본은 지난해 가장 뜨거운 여행지였다. 그러나 올해 바캉스 시즌 일본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4.7%에서 12%로 줄었다. 여행사들이 추천한 일본 여행지는 홋카이도, 날씨가 시원한 데다 온천욕을 즐길 수 있고 음식도 좋다. 모두투어는 3박 4일 첫 일정을 온천호텔에서 마무리한다. 129만원부터. 일본 상품 중에는 아라미와 동반하는 가족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도 있다. 하나투어가 오사카의 대형 테마파크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방문을 주요 일정으로 앞세운 3박 4일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109만9000원부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상상에서 현실로,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개최 중이다. 전시는 드림웍스의 창작 세계를 예술적으로 소개한다. 작은 아이디어가 드로잉으로 그려지고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애니메이션 세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2 <슈렉> story book artist Griselda Sastrawinata 3 <마다가스카> baobab sunset artist Yoriko Ito 4 <쿵푸팬더> artist Tang Heng 5 <쿵푸팬더> artist Nicolas Marlet 6 <쿵푸팬더> tai lung artists Nico Marlet and Raymond Zibach 7 <마다가스카> monkey artist Craig Kellman 8 <쿵푸팬더> artists Christophe Lautreete and Bill Kaufmann 9 <드래곤 길들이기> village+defenses artist Pierre-Olivier Vincent 10 <쿵푸팬더> main square artist Richie Sacilio 11 <마다가스카> jungle artist Shannon Jeffries 12 <마다가스카> Alex the Lion artist Craig Kellma 13 드림웍스 특별전 전시 전경 14 <드래곤 길들이기> sea dragons artist Nico Marlet 15 <슈렉 포에버> dragon rescue artist Felix Yoon 16 <드래곤 길들이기> charge artist Pierre-Olivier Vincent

드림웍스 아티스트들은 지난 20여 년간 <슈렉>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드래곤 길들이기> 등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들을 탄생시켰다.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저마다 가치와 의미를 지닌 하나의 작품으로 남겨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콘셉트 드로잉, 스토리보드, 채색 원화, 3D 캐릭터 모형, 세트 모형, 영화 음악 악보 등 400여 점이 엄선됐다. 전시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루는 중심축인 캐릭터·스토리·월드 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Section 1 캐릭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 속 캐릭터가 콘셉트 드로잉과 스케치를 거쳐 개성 있는 하나의 인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드림웍스 캐릭터들은 영화 주인공들이 가질 법한 전형적인 특징을 재미있게 비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쿵푸팬더> '포'는 판다 특유의 둥글둥글한 외모와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마어마한 쿵푸 실력을 갖고 있다. '슈렉'은 무섭고 위험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다른 영화 속 야수와는 달리 괴물이지만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다. 캐릭터의 성격과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감독, 작가, 성우, 비주얼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시각 효과 아티스트, 의상 디자이너 등 많은 전문가가 협력했고, 그 창의력의 결정체가 바로 드림웍스 영화 속 캐릭터다.

Section 2 스토리 작은 아이디어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와 감독, 작가, 프로듀서들이 협력해 영화 속 장면들을 스케치하고, 줄거리를 짜고 각본을 써 내려가며 스토리를 완성해 낸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긴 과정을 시각화해 놓은 것이 인상적인 섹션이다.

Section 3 월드 고대 이집트, 동화 속 왕국, 현대의 마다가스카, 신화 속 바이킹 등 애니메이션의 배경은 환상적이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진다. 이 전시실에서는 드림웍스 영화 속 세계(배경)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상상력, 디테일이 요구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2016.4.30~8.15
02-2124-8800



12